

---

# 해외출장 보고서

- 제31차 WHO 프로그램 행정예산위원회(PBAC) 참석-

---



**K I H A S 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출 장 자: 신정우 연구위원
  
- 출장기간: 2020.1.28. ~ 2019.2.5.
  
- 출장목적: 제146차 WHO 집행이사회 의제 준비 및 회의 참석
  
- 방문기관: WHO본부 (스위스 제네바)
  
- 참 석 자: WHO 회원국, 관련 전문가 등
  
- 요 약:
  - WHO는 책무성을 강화하며 WHO 조직 전반(본부, 지역사무처, 국가사무소)에 있어서 변화와 개혁을 꾀하고자 함
  
  - 이와 함께 WHO 직원 협회의 참여, 옴부즈맨 활동도 직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WHO의 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WHO의 변화와 개혁은 보건 분야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 기본 사업 프로그램(General Programme of Work; GPW)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WHO의 프로그램 예산과도 관계되어 있음
  
  - 프로그램 행정예산위원회(Programme, Budget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PBAC)은 WHO의 행정 사항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WHO의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Governance) 구조, 정책 방향, 비전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의로, 향후 한국 정부도 관련 분야에 활동을 넓혀가야 함

## 1. 제31차 PBAC 개회와 안건 채택

- 제31차 PBAC의 의장은 Björn Kümmel(독일)이 맡음
- 개회에 앞서 보편적 의료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확산을 이끌어온 Peter Salama 국장(WHO)을 애도하는 시간이 있었음
- PBAC에서는 독립적 외부감사위원회(IEOAC)의 보고, 제146차 집행이사회에 권고할 사안(인력, 직원 규정, 프로그램 예산(2018~2019, 2020~2021), 자원 동원, 비정부 주체의 참여 등)을 검토하고자 함

## 2. IOEAC의 보고

- IOEAC(Independent Expert Oversight Advisory Committee)는 WHO의 변화를 위한 활동(지역사무처, 국가사무소 중심)을 확인하고, 2018~2019년 프로그램 예산의 이행 수준과 WHO의 재무 상황을 검토하고, WHO의 내·외부 감사, 조사, 평가 기능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IOEAC의 권고와 활동을 지지한 가운데, 자원 동원 등 WHO 변화를 위한 의제의 계속된 이행을 촉구함

## 3. WHO의 책무성 검토

- 사무국은 제도적 책임 강화, 인간 중심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조직문화 조성, 직원의 근무 환경 개선, 기관 성과 향상이 WHO의 주요한 책무임을 설명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책무성이 중요한 주제이니만큼, 이에 관해 회원국과 계속 대화할 것을 요청함

## 4. 인력 자원 업데이트

- 사무국은 여성과 개발도상국 출신자의 구성을 늘려 인력의 균형을 꾀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괴롭힘, 성희롱 등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과 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치를 보고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고위직 임명이 늘어난 것과 컨설턴트의 활동이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현재 본부에 재직 중인 직원의 상당수가 지역사무처 등으로의 이동 조건을 충족한 가운데, 너무 많은 직원이 본부를 빠져나가는 것은 조직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함
- 이와 함께 성별 및 지역별 채용 균형, 직원의 이동 정책의 개발과 실행, 인턴

십 프로그램 등 채용 관련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근로환경 개선, UN Disability Inclusion Strategy 및 UN Mental Health Policy와의 정합성 유지 등을 촉구함

## 5. WHO 직원 협회 대표 성명

- 직원 협회는 인력의 이동, WHO 변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 직원 채용과 충원을 자발스러운 기부금에 의존한 결과를 보고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직원 협회의 논의 참여와 고위 경영진과 좋은 업무 관계를 환영하며, 이러한 활동이 WHO의 변화에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는 한편, 모든 종류의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아픈 직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와 보고를 할 것을 요청함

## 6. 옴부즈맨 보고

- 사무국은 WHO 본부 및 지역사무처의 옴부즈맨 임무와 현재 활동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옴부즈맨의 활동이 직원의 근무 환경을 조성, 옹호하는 데 가치가 있음에 지지를 표명하며, 향후 지역 사무처의 위원회와 옴부즈맨 간에 대화를 늘리고, 보고도 정기적으로 할 것을 촉구함

## 7. 직원 규정 및 규칙의 개정

- 사무국은 2019년 12월에 개최되었던 제74차 UN 총회 국제공무원위원회(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ICSC)의 결정에 따라, 전문직과 고위급 직원(사무총장, 지역사무처장 포함)의 보수를 개정해야 함을 설명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보수 개정을 승인하되, 향후에는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제안함

## 8. 국제공무원위원회 보고서

- 사무국은 제74차 UN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ICSC의 활동 관련)을 요약하여 보고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ICSC의 활동을 지지하며, WHO의 정책과 실행을 ICSC의 결정에 맞출 것을 권고함

## 9. 2020~2021년 프로그램 예산 WHO 결과 프레임워크 업데이트

- 사무국은 GPW13의 결과 프레임워크 측정에 관한 보고를 함
  - 결과 프레임워크는 triple billion goals(보편적 의료보장, 보건 위기 보호, 건강한 인구)의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추고, WHO 프로그램의 진행 경과를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WHO의 영향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게 함
  - 이는 ①Impact measurement(SDGs를 기반으로 triple billion goals의 달성을 확인), ②Output scorecard(outcome/impact의 향상에 WHO의 기여를 보여주는 접근법), ③Qualitative country case studies로 구성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결과 프레임워크 개발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작업을 지지하였으며, 2020~2021년 프로그램 예산에 성, 형평, 인권뿐만 아니라 돈의 가치도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와 함께 세 조직(본부, 지역사무처, 국가사무소) 모두에 있어서 데이터 및 정보 수집 역량 강화, 데이터의 추가적인 수집에 대한 회원국의 부담 최소화를 촉구함

## 10. 2018~2019년 프로그램 예산의 재정과 이행, 2020~2021년 프로그램 예산 검토

- 사무국은 2018~2019년 프로그램 예산의 재정, 이행의 잠정결과(확정치는 제73차 보건총회에 상정 예정)를 보고하고, 2020~2021년 프로그램 예산을 살펴봄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지난 기간의 집행률에 비교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것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유연한 자금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자원을 잘 동원하고, 돈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고, 지출의 효율성을 향상하기를 권고함
- 사무국은 주요 기여 국가와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여금의 질을 향상하고, 특정된 기여금을 줄이고 통합된 접근 방식으로 개선할 것임

## 11. 자원 동원

- 사무국은 2020~2021년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한 WHO의 자원 동원 전략에 대해서 보고함
  - 이는 제72차 세계보건총회(2019년)에서 결의가 이루어진 사안임. 2019~2023년

자원 동원 전략 프레임워크는 크게 네 가지 기둥(①정부 파트너 확립, ②자선 파트너 확충, ③펀드, 국제개발은행, UN 등 다른 기관, ④혁신적인 재정 및 수익 창출 활동)에 기초함

- WHO 자발스러운 기여금의 절반 이상이 소수의 주요 기여 국가에 의해서 형성되는 가운데, 현실을 대체하기보다 자금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중앙 집중화된 자원 동원 체제를 환영하며, 자원을 다양화하고, 자금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높이고, 자원을 잘 모으고, 활용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함

## 12. 비정부 주체의 참여

- 사무국은 비정부 주체(Framework of Engagement with Non-state Actors; FENSA)의 구현 방법, 비정부 주체와의 관계 유지(추가, 중단, 연기 대상)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FENSA의 이행으로 WHO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면서, WHO 사무소(본부, 지역, 국가사무소)에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을 할 것을 권고함

## 13. 평가: 2020~2021년 업무계획 업데이트 및 제안

- 사무국은 2018~2019년 업무계획을 평가하고, 2020~2021년 업무계획을 설명함
- 위원회와 회원국은 평가사무소(Evaluation Office)의 활동과 2020~2021년 평가 업무계획을 지지하면서, 이 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영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며, WHO 변화(transformation) 의제와도 관련되어 있음을 언급함

## 14. 인프라 자금에 대한 최신 정보

- 사무국은 ①정보 관리와 기술, ②제네바(본부) 건물 수리 전략을 보고함
- 위원회를 비롯한 회원국은 정보 관리 및 기술에 관련하여, 클라우드(cloud) 기술의 사용을 늘리고,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것에 환영하며,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이 회원국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부족한 디지털 자원을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함
- 한편, 본부 빌딩 수리, 신규 빌딩을 건설하는 것에 관련하여 비용(냉난방 시설 등)과 시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를 요청함

## 15. PBAC 보고 문건 작성 및 집행이사회의 보고

- 위원회 기간에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146차 집행이사회에 보고할 문서(EB146/3)를 작성함
- 회의 3일 차(1월 31일)에는 의장단이 준비한 보고서 초안을 놓고 위원회(및 회의 참여국)와 사무국 간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검토내용 대부분을 문서에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 작성된 문서는 제146차 집행이사회 회의 자료로 제시되고, 이틀(2월 3일~4일)에 걸쳐 PBAC의 권고 사항과 함께 주제별(프로그램 예산, 자원 동원, 비정부 주체의 참여, 평가 등)로 다루어짐
- 집행이사국을 비롯한 회원국은 PBAC의 권고 사항을 환영하였으며, WHO의 변화에 대한 계속된 업데이트, WHO의 책무성 향상, 국가의 역량 강화, 정보 제공과 투명성 향상을 요청하고, IEOAC의 활동을 지지함